

한경훈 / 2월 / 도약 GS / 3회									응시인원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529059	20	13.5	16.5	11	61	1	4.35%	7	23
534241	21	13.9	16.5	9.5	60.9	2	8.70%	7	
534313	19.5	13.5	14.5	8.5	56	3	13.04%	6	
534342	20	13.5	12.5	10	56	3	13.04%	6	
529277	18.5	13.9	14	8	54.4	5	21.74%	5	
529237	18.5	11.4	15	8.5	53.4	6	26.09%	6	
534222	18.5	13.5	11	9.5	52.5	7	30.43%	5	
529165	17.3	10.5	14	10.5	52.3	8	34.78%	6	
534383	19.7	12.5	10.5	8.5	51.2	9	39.13%	6	
534391	20	13	10.5	7.5	51	10	43.48%	5	
528964	18	13	10	9	50	11	47.83%	6	
534175	18.5	11.5	11.5	8.5	50	11	47.83%	5	
534355	19.5	13.5	11.5	5.5	50	11	47.83%	5	
534201	20	13.9	8.2	7	49.1	14	60.87%	6	
534251	18	11.5	10	9	48.5	15	65.22%	6	
534426	17.5	12.5	9.5	9	48.5	15	65.22%	5	
529402	18.5	12.3	10.5	7	48.3	17	73.91%	5	
534165	18.5	9	12.5	7.5	47.5	18	78.26%	5	
534187	19.5	12	9.5	6	47	19	82.61%	4	
534230	19	11.5	8	7	45.5	20	86.96%	4	
534163	19	11.5	9.2	4.7	44.4	21	91.30%	5	
534188	15.5	12.5	7.5	6.5	42	22	95.65%	4	
534397	19.5	5	11	0.5	36	23	100.00%	4	

한경훈/2월/도약GS/3회/1번	채점자
	이정은
<p>1. 전반적인 총평</p> <p>설문1보다는 설문2가 통문제로 20점짜리로 34조 1항 각 호를 판단해야해서 답안 구성에 있어서 연습되어있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p> <p>10점당 7점을 만점으로 채점했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저명성의 판단기준 누락하신 분들은 많이 없으셨습니다.</p> <p>두꺼운 사안포섭이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잘 쓰셨습니다.</p> <p>(2) 설문 2</p> <p>34조 1항 9,11,12,13 외의 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좋으나, 강약조절 필요합니다. 당연히 많이 쓰면 좋지만, 시간내에 정답에 해당하는 분량을 많이 쓰는 것이 좋습니다.</p> <p>9-13호 모두 인식도가 공통 논점이므로, 인식도를 선결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9호 판단시에 인식도 판단 해주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저명” 상표라는 점 언급해야합니다.</p> <p>답 틀린 경우에는, 각 호 별로 요건 숙지해야합니다. 답 여부에서 점수 많이 갑니다.</p> <p>12호후단과 13호의 경우에 판단방법 판례 누락 주의해야합니다.</p> <p>인식도 부분에서 힘 많이 쓰고, 13호 판단자체를 누락하거나 판례 언급없이 포섭만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p>	

3. 소결

설문2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문제풀이 순서를,

[해당하는 조문 찾기 > 결론 내리기 > 결론에 필요한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떠올리기 > 그 중심으로 목차 잡아서 답안 써내려가기]

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문제풀이 방식 세워나가며 좋을 것 같습니다.

한경훈/2월/도약GS/3회/2번	채점자
	이정은
<p>1. 전반적인 총평</p> <p>현대판례에 관한 문제입니다.</p> <p>대부분 잘 써주셨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타인여부 판단에 집중해서 혼동 여부에 대한 판단 누락 주의해야합니다.</p> <p>타인여부 판단 시에는, 판례 2개 기재하고 + 사안포섭 풍부하게 해야합니다.</p> <p>(2) 설문 2</p> <p>11호 후단과 13호까지 포섭하신 분들에게 만점 드렸습니다.</p> <p>문제1에서의 11호전단과 문제2에서의 11호 후단 구분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호 전단과 후단 헷갈려하시는 분들 보였습니다.</p> <p>3. 소결</p> <p>현대판례는 다들 잘 알고 계셔서 판례 암기는 다들 잘 되어있었으나</p> <p>사안포섭이나 혼동판단에서 점수가 갈렸습니다.</p> <p>이번 회차를 통해서 34조 1항 각호 요건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p>	

한경훈/2월/도약GS/3회/3번	채점자
	윤영우
<p>1. 전반적인 총평</p> <p>거절이유를 발견하고 이에 대해 검토하는 문제였습니다.</p> <p>거절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문제의 경우 모든 거절이유를 검토하며 올바른 거절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p> <p>이때 핵심이 되는 거절이유와 그렇지 않은 거절이유에 대하여 강약 조절이 되어야 하는데, 강약 조절에 실패한 답안이 다수 있었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제34조1항13호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p> <p>13호 외에도 다른 거절이유를 검토한 답안이 많았는데, 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추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하지만, 13호가 메인인 설문이므로 다른 거절이유의 비중이 높은 답안의 경우 인상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p> <p>(2) 설문 2</p> <p>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p> <p>조문을 빠뜨린 답안이 몇몇 있었는데, 이의신청과 정보제공은 자주 쓰일 수 있으므로 조문을 암기해 놓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p> <p>(3) 설문 3</p> <p>11호전단의 거절이유는 잘 발견해 주셨으나, 이외의 거절이유는 누락한 답안이 다수 있었습니다.</p>	

11호전단의 거절이유가 논점이 될 경우 상표 유사를 요건으로 하는 7호, 9호 등의 거절이유도 추가로 논점이 될 수 있음을 짚고 넘어가 주세요.

3. 소결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사안 포섭할 때 요건별로 목차를 나눠 작성하면 통으로 작성할 때보다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결론을 작성할 때 요건을 한번씩 검토하며 결론을 작성해 주세요.

(예) “34조1항7호의 거절이유가 있다” 보다는 “타인의 선등록상표가 있고, 양 상표는 유사하며, 양 상품은 동일하므로 34조1항7호의 거절이유가 있다” 전자보다는 후자의 경우 더욱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한경훈/2월/도약GS/3회/4번	채점자
	윤영우
<p>1. 전반적인 총평</p> <p>34조1항7호의 거절이유 검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p> <p>비교적 까다롭지 않았기에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답안에 나온 판례 외에도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추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품의 속성과 거래실정을 구체적으로 포섭한 답안에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2) 설문 2</p> <p>34조1항7호의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물어보는 문제로, A급 논점인 만큼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p> <p>간혹 일반론을 길게 작성한 답안이 있었는데, 일반론에는 점수를 많이 부여하지 않았습니다.</p> <p>조치를 간단히 작성한 답안이 몇몇 있었는데, 문제의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p> <p>3. 소결</p> <p>까다롭지 않은 설문이었기에 대부분 답안을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p> <p>그렇기에 사안포섭에 있어 점수차가 갈린 것 같습니다.</p> <p>사안포섭이 길어질 경우 목차를 나눠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숫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p> <p>이 경우 줄글로만 작성한 답안보다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p>	

<문-1>

I. 설문 (1)

1. 법 342 항 6호 의의.치지

저명한 타인의 성명 등 인격권 보호를 위해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 등록 불가하다.

2. 타인 여부 - 청구

심사기준에 따르면 걸그룹의 명칭 등도 인격권이 침해된 것으로서 타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걸그룹 명칭 X도 타인에 해당한다.

3. 저명성 여부 - 청구(1) 판단 기준 위치

타인의 명칭 등이 저명하진 여부 판단시에는 사용기간. 사용방법. 사용태양. 수요자 범위. 거래실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사안1) 사용방법. 태양

A 회사 소속 안기 걸그룹 X는 4년 간 준비기는 거쳐 2022.5.6 데뷔한 여성그룹으로서 Q라는 음원으로 2022.3.31 음원순위 1위에 오른 데뷔곡 P는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 200만 기록 및 음원순위 1

위를 기록했다. 2022년 다수의 상 수상 및 관련 기사가 다수 게재될 점 등 고려해보면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3년 간 독재적으로 사용하여 지명성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2) 거래실태

오늘날 생활 수요 향상과 함께 인터넷 광범위한 보급으로 대중음악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수요의 증가에 따른 수요자 인식에 따라 걸그룹 X는 걸그룹의 명칭으로서 지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소명

위 사실 등은 종합적 고려해볼 때 걸그룹 명칭 X는 수요자 사이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주요~~ 인식될 지명하는 명칭으로 보인다.

4. 명칭 포함 여부 및 음악 여부

B 초음파 상품은 지명 걸그룹 명칭 X가 포함되어 있고 걸그룹에게 음악을 받은 사실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B 초음파 상품은 지명하는 지명이유 존재하므로 의견 제출통지서 소명 타당하다.

II. 원 (2)

1. 상표 인식도 - 미명

A는 음반을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X 명칭과 동일한 상표를 음반에 표기하여 발매하고, 예컨대 P는 국내 대다수가 약 20%로 큰 히트를 친다. 결국 X가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 광고모델 활동 등으로 미확인한 일부를 누리게 될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X는 상표권 미명성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

2. 法342 1항 9호 여부 - 미명

(1) 의의. 취지

주지/상표 보호를 위해 타의 상품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된 상품과 동일. 유사 상품 동일. 유사 상품 출원 시 등록 받을 수 없다.

(2) 사안

B 출원상품은 미명상품 X와 동일하나 면세권트는 인식도를 취득한 음반. 가요공연 등과 비교해볼 때 품질. 용도. 거래실태. 소비자 범위 등이 전혀 상이한 비유사 상품에 해당 하는 바 볼 수 없다.

3. 法342 1항 11호 위반 - 미명

(1) 의의. 취지



지명상품 보호 및 소비자 혼란방지 방지를 위해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될 상품과 혼동 여려 있는 상품 등록 받은
수 없다.

(2) 혼동 유무 판단기준 제시

양 상품 사이 혼동 혼동 유무 판단 시에는 모방대상상품
의 지명성, 상품 및 상품의 유사성, 밀접성, 영업의
유사성, 사업 다각화 정도, 영업 준비 여부, 소비자 행위,
거래실적 등 종합적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사안

상품 X는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 광고활동 등으로 지명성을
취득했고, A 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 다수인 인기 아이돌 그룹이 소속되어 있는 점,
그룹 X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위류, 악세사리
등 다양한 상품 광고모델로 활동한 바 있으므로 지명
성 취득한 음반, 가수공연 등나 연예인트를 비교
해볼때 상품 출처에 대해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영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B 추유헌품에는
법 34조 1항 1호 제1호를 결재한다.

4. 법 34조 1항 1호 ^{제1호} 12호 - ^{제1호} 3호

(1) 의의, 취지

품질보증기능 보호 및 소비자 혼동 방지를 위해 소비자

기만할 영려 있는 상표 등록 불가하다.

(2) 출처 표시 의무 기만 요인 배제

출처 표시 의무 기만 상표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단 본
대상상품과 국내 특정한 출처 표시를 인식되고, 동일·유
사한 상품을 동일·유사 상품 또는 출처 표시자의 사용으로
인식할만한 특별한 사정 있는 것은 아니다.

(3) 지명성 취득 시 배제

상품이 지명성을 취득한 경우, 다른 종류 상품이
사용되더라도 그 용도, 거래실제 등 고려할 때
상표권자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있는, 특별한 관계
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품에까지
등록 금지 사항 수 있다.

(4) 사안

A의 상품 X가 지명성 취득함에 따라 동일·유사
상품이라고 보는 어려운 변질·왜곡에 X를 사용하는
경우 A의 상품 사용으로 인식될 수 있거나 A
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B 출원 상품은 출처 표시 의무
기만 영려 있는 34조 1항 1호 후단 제2
이유 존재한다.

5. 34조 1항 1호 - 정지

(1) 의의. 취지

수요자 인식 범위 및 시장표준이나 범위 위해 국내·외
특정인 표지로 인식될 상품과 동일·유사 상품 부정 목적
출원 시 등록 불가하다.

(2) 부정목적 판단기준 취지

부정목적 객관 판단시 일반대중 상품 인식도, 창작성,
동작성의 구성, 상품의 관계, 밀접성, 표상 유무 및
그 내용, 양 당사자 관계, 입주의 밀접성, 거래실적
등 종합적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사안

B 출원상품은 유명상품 X라 그 구성이 동일하여
B 출원상품은 독자적으로 창작성 인정되기 어렵고
같은 인터테인먼트 업체 종사자로서 양 당사자 업무
의 밀접성이 높고 서로 경쟁관계로 예상되는 바
B는 A의 명사와 실용에 부당 편승하려는 부정
목적 인정되므로 제34조 제1항 13호 제2단 이유 존재
한다.

6. 결론

34조 제1항 11호 제2단, 12호 제2단, 13호 제2단 이유 존재
재한다.

국

20

(주)

<문제-2>

I. 질문 (1)

B.6

1. 法 3421항 11호 제단 의의. 취지

지명상품 보호 및 수요자 혼동 방지근 위해 지명 상품
의 혼동 염려 있는 상품 등록 불허하다.

2. 타인 여부 - 청구

(1) 사회상 실체 제사제

불혼의 타인성은 개별 기업,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상 실체도 포함한다.

(2) 계열분리된 경우 제사제

대규모 계열분리로 인해 여러 기업그룹으로 나뉘진 경우
그 중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수요자에게
그 신용의 지속 주체로서 인식됨과 아울러 그 신
용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는 계속적
주체로 보아야 한다.

(3) 사안

병태양그룹은 사회상 실체로서 타인이 해당한 수 있고
甲.2.丙 그룹은 각각 국내 기업순위 상위, 사업
다각화를 통해 아직 계열사 보유하고 있는 점 등
종합적 고려할 때 신용 지속주체는 甲.2.丙
그룹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023 9월 14일 아

무엇을 통칭하는지, 저작물의 원형에 있는 ~~주요~~ 22사는 2등
과 타원의 해당한다.

3. 활동 영역 - 지능

(1) 활동 여부 판단 기준

양상품 사이 활동 영역 판단 시에는 모방대상상품의
지명성, 포장의 구성, 상품의 유사성, 사업 다각화 정도,
수요자 인식 범위 등 종합적 고려한다.

(2) 사안

~~주요~~ 22그룹은 사업 다각화를 통해 다수 계열사를
보유하는 점, ~~주요~~ 22그룹에 속하는 계열사들이 공표장 등
상업용지 개판 관련 사업 운영하는 점, "태광"은
지명하는 상품에 해당하는 점, 22사 포장 중 지
적 부분은 지명서비스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크다고
보여 이력을 점 등 종합적 고려하면 22 출원
상품에는 22그룹의 상품인 "태광"과 활동 영
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상기 4개 하위항목의 지명어유 존재하므로 해당
지명어유 타당하다.

II. 설문 (2)

4.9

1. 法 34조 1항 1호 후단 여부

(1) 의의, 취지

지명상품 식별력. 명칭 보호를 위해 지명상품 식별력. 명칭 항상 영려 상품 등록 불가하다.

(2) 사안

단백장 운영업은 북상미 이미지를 가진 시비스름 태광그룹과 아무런 관계 없는 J이 사용한 경우 지금까지 쌓아온 그룹의 상품으로 명칭이 사용될 영려 있다. 따라서 34조 1항 1호 후단 관계이유 존재한다.

2. 法 34조 1항 13호

(1) 의의, 취지

지명상품권자 보호 및 소비자 혼동 방지를 위해 국내에 특정인 출처로 인식될 상품과 동일·유사 상품 부침 목적, 초음시 등록 불가하다.

(2) 심사기준

34조 1항 1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부침한 목적 있는 것으로 보아 13호 함께 통시한다.

(3) 사안

지명상품으로 인식도 취득한 '태광'과 동일한

상표를 도박장 운영업에 초음하는 경우 제명상표의
신용이 훼손하려는 부당한 목적 인정되므로 ㄱ
초음상표는 34조 1항 13호 기재이유 결재한다.

3. 결론

ㄱ 34조 1항 11호 해당. 13호 기재이유 결재하여 ㄱ
초음 등록 불가하다.

13.5
<결>

<문-3>

I. 실문 (1)

~~ㄱ 34조 1항 13호~~

1. ㄱ 34조 1항 9. 11. 12호

국내 인식도 취득한 사증 없으므로 불 기재이유는
없다.

2. ㄱ 34조 1항 13호 의의. 취지

모방대상상표 권리자 보호 및 소비자 인식 보호를
위해 국내·외 특정한 출처로 인식될 상표와
동일·유사 상표 출원 부당한 목적으로 출원시 등

를 불가하다.

3. 타국에서 인식도 취득 - 제국

甲의 상표 "BARBIE"는 2024년 말 제국도 미국 내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한 출처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므로 볼 때 충족한다.

4. 상표 유사 - 제국

(1) 요건 관찰 의미. 필요성 사례

하나의 상표가 둘 이상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경우 수요자에게 인식이나 기억, 연상작용을 강하게 일으키는 부분, 독립하여 출시되는 부분 즉 요부가 될 재하는 경우에는 제각각 자체관찰 결과 유무를 위해 요부관찰 필요하다.

(2) 사례

1) Z 상표 요부 - 바비

Z 상표는 바비와 쿼이 결합된 상표로서 쿼이 부분은 자상상품인 인형, 미용용품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크지 않은 반면 바비 부분은 것이 상표로서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고 甲 상표 BARBIE가 미국 내 인식도 취득한 점 등 종합적 고려하면 Z 상표 요부는 '바비'다.

2) 대비

2 상표 모두 '바비'라 甲 상표 "BARBIE" 비교해
 보면 의관에서 한글과 영어라는 차이가 존재
 하나 훈칭은 모두 바비로 동일·유사하고
과해된 것에서 비교할 수 없음, 문자상표에
 시는 그 훈칭이 가장 중요한 점 등 고려하
 면 양상표 유사하다.

5. 부정 목적 - 징구

(1) 판단기준 제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 판단시에는 모방대상상표
 의 원산지, 창작성, 포장의 구성, 상품의 유사성, 교섭
 유무 및 내용, 양 당사자 관계, 임무의 밀접성, 거래신
 성 등 종합적 고려한다.

(2) 사안

甲 상표는 딸의 이름을 따서 창작한 포장으로 창작
성이 매우 높고, Z은 국내 장난감 판매업자로서 甲
 과 수입판매에 관계 관습했으니 관련될 점, Z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 등이 먼저 주요
심상하기 위해 추진한 점은 종합적 고려해 보면 甲
 의에 주해를 입히려고 하는 부정 목적 인정된다.
 비록 비유사 상품 일부 포함되더라도 진부상품에 대해

인정된다. (제141)



6. 결론

2 출원에는 특3421항 13호 기재이유 존재한다.

II. 심문 (2)

3.0

1. 여상 기재이유 - 특3521항

(1) 의의. 취지

중복 권리 발생 방지를 위해 상출원 상표와 동일·유사 상표. 동일·유사 상품 출원 시 등록 불가하다.

(2) 사안

앞서 살펴본 바 甲 상표. 2 상표 서로 유사하고 상품은 인형으로서 동일하고 2 상표에 실려 기재이유 있더라도 기재권장 특징 등으로 상출원지위 있어 특3521항 기재이유 존재한다.

2. 이의신청. 재심청구 결과

(1) 의의. 취지 - 특602. 492

광중 심사참여 단계를 위해 기간 내 기재이유를 그 증거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2) 인용상품 인정시 취지

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인용상품 기재권장 특징, 출원 평가. 취지 등으로 상출원지위 인정 인정되는 경우 등록가능하다.

(3) 사안

2출원에는 앞서 살펴본바 342 1항 13호 제1이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기초로 甲은 2개 기간 내 이의신청·심판제공을 통해 2 출원 제1시권 두 자선 상표 등록 가능하다

Ⅲ. 설문(3)

6.0

1. 상표 유사 여부 - 2구

(1) 모방라고 할만한 것 없는 경우 제외

상대칭 식별력 차이 등이 없어 상품에서 모방라고 할만한 것이 없는 경우 관습상 관행에 따라 지체 대비. 판단한다.

(2) 사안

兩 출원 상표 "barbie & donald"에서는 barbie 부분과 donald 부분 모두 조어표장으로 양 구간의 식별력에 상대칭·상대칭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兩 상표 전체와 甲 상표 BARBIE, DONALD를 각각 대비해 보면 양 상표 총칭은 '바비 앤드 도날드'와 '바비' 그리고 '도날드'를 서로 상이하고, 관념은 조어 상품에서 비교하기 힘들다. 이러한 경우에도 영의 대상문자의 차이 &의 유무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면 인과도 시로 상이하다. 따라서 양
상품은 시로 비유사하다.

2. 342 1항 9. 12 ~~항~~ 13항 여부-2구 x (7)
양 상품 비유사하므로 342 1항 9항. # 12항 ~~항~~
13항 가장이유 있다.

3. 342 1항 11항 ~~항~~ 여부-2구

(1) 의미. 취지

지명상품 본. 유사자 등록 항지는 위해 지명상품과
등록 명려있는 상품 등록 불가하다.

(2) 상품 비유사한 경우 사례

양 상품이 시로 비유사한 경우에도 시로 비교해볼때
대상 지명상품이 ~~용이하게~~ 연상 구상. 모티브. 아이
디어 등이 시로 유사하여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지명상품 상품과 밀접한 관련성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불은 인정된다.

(3) 사례.

甲 상품을 보면 甲 상품과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더라도 甲 상품인 "BARBIE"와 "DONALD"
와 그 구상이 유사하므로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나 甲 상품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지명상표인 ㉠ 상표와 출시 행동을 일으킬 영역이 인정된다. 따라서 法 34조 1항 1호에 따른 해당한다.

4. 결론

法 34조 1항 1호에 따른 제외이 있으므로 兩 출원 등록 불가하다.



<문-4>

I. 질문 (1)

6.0

1. 法 34조 1항 1호의 의의. 취지

신출원 ~~등록~~ 상표 보는 및 수요자 행동 방식을 위해 신출원된 타원 등록 상표와 유사 상표 등록 불가하다.

2. 상표 유사 여부 - 정규

(1) 의관·출처·관념 판단방법 취지

의관·출처·관념 중 어느 하나 비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수요자가 출처 행동할 영역이 있는 경우 양 상표 유사



한 것으로 본다.

(2) 사안

1) 외관·형식 비교

양 상표는 외관에서 첫 한자인 韓 부분의
절부에서 차이가 있고, 형식도 각각 '해식화'
와 '식화'로 '한' 유무에서 차이가 존재
한다.

2) 관념 비교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에 속하여 2 상표를
구분하는 시 한자는 모두 기발성인 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 상표는 '눈꽃', 乙 상표는
'한국의 눈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乙 상표 첫글자가 뒤 두글자를 수식한다는
점은 우리나라 한자 사용 거래질서, 기발 수준
등이 비추볼 때 상당히 파악할 수 있다. 따
라서 관념을 유지한다.

3) 인정

한자는 표의문자로서 글자의 의미·관념이 매우 중요
한 점, 양 상표 외관·형식·관념 종합적 비교
할 때 관념을 압도할 정도로 외관·형식이 상
이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에게
서 충치 충동 영려 있으므로 양 상표 유사
하다.

3. 상품 유사 - 징구

(1) 판단 기준 예시

상품 유사 여부 판단 시 품질, 형상, 용도, 생산자, 판매장소, 수요자 범위, 거래실태 등 종합적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사례

신록씨품과 스라게이품 지품은 동일 업체 생산하는 거래실태가 있고, 대부분 동일한 판매장소에서 같이 판매되는 거래실태가 많고, 수요자 범위도 대부분 커피는 김 등 종합적 고려하여 양 상품 유사하다.

4. 결론

상기 3개항을 종합해볼때 심사관 의견에충족시키 판정한다.

II. 실문 (2) 5.0

1. 의견서 제출

2이 2023년 9 국내 인지도 취득한 바 일반 수요자에게 해당 명제가 있는 비유사 상품임 주장해볼 수 있다.

2. 무효심판 청구

(1) 의의. 제121-1항 117조

공익상 하자 있는 권리 인정 위해 이해관계인 등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다.

(2) 제34조 1항 12항 후단

2이 2023년 9 인식도 취득하고, 유사 상표를 유사 상품에 출원해바 2024 말 등록여부판결시 기준 34조 1항 12항 후단 무효사유 존재한다.

(3) 제34조 1항 13항

2 상표 2023년 9 국내 인식도 취득 이후 유사해 상표를 출원하여 2의 신용에 편승하려는 등 부정행위 목적 인정되므로 34조 1항 13항 무효사유 있다.

(4) 인정

2은 34조 1항 12항, 13항 주장하여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다.

3. 취지심판

119조 1항 1항 사유 등 인정된다면 취지심판 청구할 수 있다. 119조 1항 3항은 실정등록 후 3년 이내로 불리하다.

4. 공중등에서 미충

(1) 의의. 취지 - 2항 3항 4항 7항 1항

거래실패 반영 및 원상 복귀 하기 위해 유사범위 물건
동의 시 등록가능하다.

(2) 사안

2은 甲과 유사범위 내 상품주권 이므로 공
중등의를 얻어 등록할 수 있다.

5. 제1.항도 권유

유사유를 기하를 상품권 제1.항도 권유 할 수 있
다.

6. 심사청구 중지요청 - 70조 1항

무효심판 등 청구 후 심사청구 중지할 것은
요청할 수 있다.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1] (상표법은 아님, 상표법이라 한다.)

I. 실문(1)

1. 상표 34호 1항 6호 의의 취지

인식권 보호를 위해, 지명된 타인의 상표 등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을 불허한다.

답.

2. 왜이제가 심사한 취지

지명된 타인의 상표 등에 혼동될 인식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3. X가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각각)

질문을 보면 X는 아이를 그룹 명칭으로서 특정인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이르는바, 인식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조의 '타인'에 해당한다.

4. X가 지명된 상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각각)

(1) 상표 등의 지명성 판단방법(왜이제)

타인의 상표 등이 지명하는 사용방법·대상·사용기간·상품의 거래실정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또는 지명상 등의 거래실정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결론

본 조의 취지인 인격권 보호를 위해 지명성의 기준을 완화함이 타당한 바, 사례계의 태도 타당하다.

(3) 사안

① 길그룹 X는 데뷔 전부터 공개한 음원이 순채널에 오른 정도로 하루에 올랐고, 데뷔곡의 인기도 다수 수상 야쿠온 볼 때 일반수요자에게 상당한 주지-지명성이 있는 길그룹에 해당하는데, ② B의 작명능인 '립스틱, 메이크업'의 수과 등을 고려하면 길그룹 X와 인연된 것으로 인정하기 쉽고, ③ 오늘날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대중음악에 대한 수과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④ X는 지명한 실명 등에 해당한다.

5. 위변제출통지시 승부의 당부(각목)

① B는 위의 같은 X를 포함하는 "X+a"를 출원하였고,
 ② 달리 A와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로 보지 않는 바,
 ③ 조 34는 1항 6호에 해당하여, 위변제출통지시 승부는 타당하다.

II. 실문(2)

14

1. 권제 - X의 상용로서의 인격권 당부(각목)

① 실문(1)에서 상용한 바와 같이 X는 유명 길그룹

- 명칭으로서 지명한 심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 ② 정의를 X는 다수의 방음프로그램에 흔한 음악 공연, 방음 출연 활동에서 높은 인지도를 얻은 점,
- ③ 위촉, 약제사리 등 다양한 상품의 광고모델로 활동하여 건무후한 인기를 얻은 점 등을 고려할 때,
- ④ X는 '방음업' 등에 대해 상표로서의 인식을 취득했다.

2. 제34조 1항 1호 해당 여부 (각)

(1) 제34조 1항 1호 1의 취지

수익자의 신뢰 보호 및 출처 오인·혼동 방지를 위해, 타인의 주지 상표나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시 등록 불가하다.

(2) 사안

B의 출원상표인 '변제코트'는 X가 인식을 얻은 '방음업, 음원판매패업 등'과 동일·유사하지 않아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제34조 1항 1호 2의 해당 여부 (각)

(1) 제34조 1항 1호 2의 취지

지명 상표 보호 및 출처 오인·혼동 방지를 위하여, 수익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표나 영입된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등 등록 불가하다.

(2) 혼동 염려 판단방법 취지

모방대상 상품의 지명한 정도, 자징상호·영양 등어의
모양·유사 정도, 사형리각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
단한다.

(3) 사안

X는 지명한 상품로서 위촉·약제서리 등 다양한 상품의
강인모델로 활동한다. B가 '변제호'에 X를 클리시
X와 모방한 인제가 있는가에 의해 제군·판매되는 상
품으로 오인된 가능성이 높으나, 본 표에 해당한다.

4. 지표 342 항 12호 후단 해당여부(각각)

(1) 지표 342 항 12호 후단 위·취지

수사나 모자를 위해, 수사를 기반한 염려가 있는 상품
은 등록 불가능하다.

(2) 수사 기반 염려 대상 상품 오인 취지

수사를 기반한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어도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품 클리로 알려져 있어야 하며,
그 상품도 동일·유사한 상품을 동일·유사한 상
품에 클리해야 한다.

(3) 지명한 상품을 모방한 경우 취지

상품이 동일·유사하게 알려지도록 지명한 상품의 전
견상이 있어 해당 상품의 인제가 모든 그런 일

집합 관계에 있는 자가 제2·3항에 하는 행위를 오
인권 행사가 위한 경우라면 본 조에 해당한다.

(4) 사안

바를 X가 '변제호트'에 대해 기명성을 획득한 것은
아니지만 X의 방음출연업 등에 대한 기명여 권리를
볼 때, B의 '변제호트'에 대한 출원은 X와 밀접
한 관계에 있는 자의 상품 출원으로 오인될 우려가
따분한 바, 본 조에 해당한다.

5. 지.34조 1항 13호 해당 여부 (24)

(1) 지.34조 1항 13호 위·취지

누가 한 및 부당행위 행위를 위해, 국비에서 특정
인의 상품 표시로 알려진 상품에 동일·유사한 상품을
부당한 목적으로 출원시 등록 분해한다.

(2) 부당한 목적 판단방향 취지

출원인에게 부당한 목적이 있는지는 모방대상상품의
인식도 및 광고성의 정도, 해당 상품을 둘러싼
시장의 유무 및 그 내용, 상품의 동일·유사 정도,
실제 출원인이 사명을 준비 하는 진행 상태 등을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사안

① X는 국비에서 제1항 상품에 해당하여, ② B는

X를 증명하기 보강 출원하였고, ㉓ X의 출원이 방출된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우회·악용에 따른 증거
 자료를 김 등을 제출한 때, ㉔ B는 X의 신봉에
 부합하게 행동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출원행위가
 극명한 바, ㉕ 본 표에 해당한다.

국!!

6. 신봉의 해명

B 출원행위는 2013년 1월 1일, 2013년 1월
 12일 후, 2013년 1월 13일 개원이 예정된다. [출]

나* 2013 9월 11일
 * 10월 2

[문제-2]

I. 식문 (1)

1. 식문 34호 항 1호 관련 위·취지

수과 보호 및 출처 혼동 방지를 위하여; 수과류에게
현재 인식되어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품을 등록 불가능하다.

2.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사례(1) 기업그룹이 '타인'에 해당하냐

식문 34호 항 1호 관련 '타인'에는 개인 또는 개
별 기업뿐 아니라 여러 기업 및 계열사 그룹을 이
른 사회적 단체로 해석할 수 있다.

(2) 신상품 관련 권리사 관련

경제적·조직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계열사들의 그룹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상품의 채택·사용에
있어 능동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신상품에 한해
신용을 얻고·유지하고 있다는 인상은 계열사들이
신상품의 권자로 인정된다.

3. 혼동 방지 작용방법 사례

문방대장 상품의 지명할 정도, 상품·영입의 밀접성
과 유사성, 사담대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가 있음을 판단한다.

4. 사안

(1) "태양"의 원상 판단

甲. 乙. 丙 그룹은 그 각각의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에 이르러 국내 기업들위에서 각각 상표권에 들어, 그 상품대상의 의 경로를 고려할 때, 각각의 상표로 "태양"을 계속 사용해 오며 병 태양그룹을 이은 甲. 乙. 丙 그룹이 "태양"의 원상으로 판단된다.

(2) 乙사의 타인 여부(각각)

반면 乙사는 원래 乙그룹은 후세되어 "태양"이라는 상표를 '공공성 지킴'의 출처로 사용해왔으나, 계속 분기 전에 상표를 변경한 결과 2023년 3월 20일 이후부터 乙그룹의 아무런 상표·상표권 관계가 없으나, "태양"의 원상인 甲. 乙. 丙 그룹의 관계에 있어 乙그룹은 1항 13호의 "타인"에 해당한다.

(3) 혼동 염려 여부(각각)

현재 甲 그룹에 속하는 계열사들이 태양 등 관련 사업에 "태양"을 사용해 운영 중인 점, ① 甲. 乙. 丙 그룹의 상품대상의 정도, ② 乙사의 각 상표인 '공공성 지킴'의 상업적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③ 乙사에 출현상업은 "태양"과 혼동 염려가 존재한다.

(4) 조항

위와 같은 사안을 종합할 때, 22A의 특허상표는
 제34조항 1호 위반에 해당한다.

5. 실문의 해명

따라서 해당 기밀문장은 타당하다.

구
A

II. 실문(2)

1. 제34조 항 1호 후단 해명 여부 (각)

4.9

(1) 제34조 항 1호 후단

지명상표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불허한다.

(2) 명성 손상의 우려 유무

지명상표를 부당한 이익을 가진 상표에 후원하는
 등으로 지명상표에 혼재된 상표 등록에 대한 신
 리를 약화시키는 등으로 지명상표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한다.

(3) 사안

- ① '드래킹 운영법'은 부당한 이익을 가진 서비스로서,
- ② '레깅'이 각 상품분야를 광범위 신드롬을 대거 창출

다만 아무런 상응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㉓ J의 출원이 등록·사용권 경우 '태양'의 명칭은
 존속해되어 지명 상표는 희박한 영예가 높으나,
 ㉔ J의 출원은 본 호에 해당한다.

2. 지표 342 1항 1호 해당여부 (각각)

㉑ '태양'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지명상표에 해당
 하는 점, ㉒ '태양'의 사용권한 권리를 고려할 때,
 ㉓ J은 '태양'의 지명성에 따른 상품에 부합되는
 목적으로 출원·사용이 자행한바, ㉔ 본 호에 해당한다.

3. 결론의 해설

J 출원은 지표 342 1항 1호 후단 및 지표 342 1항
 1호에 해당하여 등록 불허하다. [문]

잘 이해한다.

13.9

[문제-3]

I. 실문 (1)

8.0

1. 조 34조 항 1호, 11호, 12호 해당 여부 (각각)

해당 조들이 가려야 하는 모든 국내에서의 인식도 취득을
원래로 하는 바, 甲의 "BARBIE"는 국내에서 인식도를
취득하지 못하여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해당 가려야 한다

2. 조 34조 항 13호 해당 여부 (각각)

(1) 조 34조 항 13호 의의 취지

부당한 목적의 출원은 불허하는 바, 국내·외에서 특정인의
상표 출원으로 인식된 상표인 출원·유사한 상표를 부
당한 목적으로 출원시 등록 불허한다.

(2) 甲 상표의 인식도 취득 여부 (각각)

甲 상표는 그 출원 관련 2024년 말에 이미 마국
내 수사 사에서 특정인의 출원으로 인식되었다.

(3) 甲, 乙 상표의 출원·유사 여부 (각각)

1) 乙부의 지명 및 여부판단 관행성 사례

상표의 유사판단은 관례판단이 안락이나, 상표를
수사에게 강한 인상은 심하게 기억·연상케 함으로
써 독립하여 출원·유사기능을 하는 부분, 즉 乙부가
원래 경우에는 객관적 관례판단의 결론 유무를 위해
여부판단 가하고 유사여부를 대비·판단해야 한다.

2) ~~특~~ 내부 통상의 객관적 기준 위시제

해당 구성 부분의 주사-리명 정도, 강한 인상은 남아있을 시 여부, 차가운 바늘, 상대적 수평적 수평. 조합 정도 및 자정성능에 의해. 기대효과를 통해 고려된다.

3) 사안

- ① 甲 상표인 "BARBIE"는 '바비'로 호칭되어 이렇듯만 사용되어 왔다.
- ② 乙 상표인 "바비퀵"은 인형 등 각 표상물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수평적이 아닌 '바비'에 비해 '바비'가 더 강한 인상을 남겨서 사용되어 왔다 한 점이다.
- ③ 甲의 "BARBIE"와 乙의 '바비'를 인정한 다음 둘 그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 ④ 문해상론에서 표상의 유사여부가 중요함을 고려할 때,
- ⑤ 甲. 乙 상표는 유사상론에 해당한다.

(4) 乙의 부당한 목적 존재 여부(23%)

1) 부당한 목적 판단방법 위시제

모방대상상표의 표상성과 인지도, 양 상표의 유사 정도 및 상표를 둘러싼 대상의 유사 및 내용, 출원인이 실제 사업을 준비 중인지 여부 등 모든 종합 고려된다.

2) 표상성이 목적의 영향 위시제

출원인의 내면적 의사는 표상성에 의해 판단할 수 없으나, 바류한 상표가 위태로운 한 상표에 대해 부당한 목적의 유무 이상 본 표에 해당한다.

3) 사안

① 2이 "바바퀸"은 여성에 대한 개념으로 능해하는
 일과, ② 甲이 여성 변신 사건이며, ③ 2은
 장난감 판매업자로 "BARBIE"의 이름과 사물을 갖고
 판매 행위로 인해 "바바퀸"은 능해한 바, ④ 2은
 부정할 목적으로 출판이 인정된다.

(5) 소견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과 증거를 볼 때, 甲 소장이 원
 인정이 있는 '오른바비' 출원에는 부정할 목적이 인정되며,
 2의 출원 자체가 2034로 항 13에 해당한다.

3. 심판의 결론

2 출원에는 2034로 항 13 원 기각요구가 있다.

II. 심문(2) 3.5

1. 예상 기각요구 - 2035로 항

(1) 심판인 2035로 항 우리·후

주요 심문 배경을 위해, 출원 유사 심문 및 동인·유사
심문이 출원이 변신을 경유 심판만 등록 가능하다.

(2) 사안

① 심문 (1)에서 원은 바비 같이 "BARBIE"와 "바바퀸"은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며, ② 각 상품을 역시 '인화'으로
그의 상표권과 동일하며, 이를 353으로 해당한다.

2. 甲이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

(1) 정보제공 조. 49조

누구든지 출원 상품에 대해 기밀유지가 있음을 증명
한 후에 특허청장에게 정보 제공 가능하다.

(2) 사안

실문 (1)에서 동한 바와 같이 그 출원에는 조. 34조
1항 1호의 기밀유지가 있으므로, 甲은 이에 대해
증거와 함께 정보제공 가능하다.

3. 甲이 이익신청을 하는 경우

(1) 이익신청 조. 66조

출원인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2년 내에
기밀유지가 있음을 이유로 이익신청 가능하다.

(2) 사안

그 출원이 출원당리인 경우 甲은 그로부터 2년 내에
조. 34조 1항 1호 해방을 이유로 이익신청 가능하다.

4. 정보제공 또는 이익신청에 따른 권리

(1) 출원인이 해방된 경우 권리



후원인 등록업무절차를 가함으로써 사실상 후원인 취
하 물이 기타 야채로 인정된 경우에는 35.35로이
개인에게 리임 제공하지 않는다는 압정이다.

(2) 서안

甲이 강보제공 또는 이의신청하여 그 후원인 개인에게
정당 취득하는 경우 甲 후원인 등록업무절차에 관해
소명하면 甲은 35.35로 해당 물에 대해 등록 가능
한 것이다.

II. 실문 (3) 5.0

1. ~~등록업무절차~~ 상품의 유통약 (5점)

- ① 甲 등록상품은 각각 "BARBIE"와 "DONALD"로서,
- ② "BARBIE"와 甲의 "barbie&donald"를 리미타르도
권리자인 티안·호링·안영이 상하여 바위사하여,
- ③ "DONALD"와 甲 상품을 리미타르도 권리 티안·호링·
안영의 라가 상하여 바위사한다.

2. 35.34로 항 안·2호후안·3호 해당 약 (5점)

본 호의 바위사들도 모두 상품의 유통을 권리로 하도
바, 甲의 등록상품과 甲 후원 상품과 바위사하여
해당사항 없다.

3. 제34조 항 1호 관련 해명여부(각각)

(1) 제34조 항 1호 취지 취지

특허 발명 및 권리 행사 행위를 취지, 제명상권으로 존중
영어가 있는 상표를 등록 허가한다.

(2) 존중 영어 관련 방법 취지

제명 상표의 제명 권리, 상표의 유사 모방성, 사후관
한 권리 등을 고려하여 존중한다.

(3) 상표가 바뀌는 경우 취지

상표가 바뀌는 경우에도 각 상표의 모티브에 이
디어 등록 하여야 할 때, 특허상권으로서 제명상
권 용어에 연결되거나 제명상권 모방성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허 권리가 존중
되므로 본조에 해당한다.

(4) 사안

① 바둑 甲 상표와 丙 상표를 바꾸는 경우, ② 甲 상
표가 국내에서 4명의 상표로 제명상권 획득하였고,
③ 丙 상표는 甲 상표 등 제를 검토하여 연결한 것으로
"barbie & donald"로부터 "BARBIE"와 "DONALD"가
용어에 연결되거나 甲 상표 모방성 관련성이 있어
본조 바, 제34조 항 1호 관련해 해명한다

(5) 결론

丙 상표는 제34조 항 1호 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문제-4]

I. 식별(1)

6.5

1. 제3자로 할 수 있는 경우

상표권자의 본 및 권속 상표에 대한 권리, 상표권 등
상표권 등인·유한한 상표권 등인·유한한 상표에
대한 권리 등 포함한다.

~~2. 제3자~~

2. 상표의 유한한 경우 (국)

(1) 유한한 인본적 사례

제3자로 할 수 있는 상표는 다른·호칭·인본적 권속·권속·
인본적 인본적 권속·권속·인본적 권속·
인본적 권속·인본적 권속·인본적 권속·
인본적 권속·인본적 권속·인본적 권속·

(2) 다른·호칭·인본적 사례

다른·호칭·인본적 등 다른·호칭·인본적 권속·
인본적 권속·인본적 권속·인본적 권속·
인본적 권속·인본적 권속·인본적 권속·

(3) 사안

① 甲 상표인 2 상표는 다른·호칭·인본적 권속·
인본적 권속·인본적 권속·인본적 권속·
인본적 권속·인본적 권속·인본적 권속·

② 다른·호칭·인본적 권속·인본적 권속·
인본적 권속·인본적 권속·인본적 권속·
인본적 권속·인본적 권속·인본적 권속·

- ③ 권리행사인 권리충족에서 원고는 일반 독자의 인식에
있어 충당에 수용하는 바, 이 관을 세우면,
④ 위판의 본질에 의해 과잉 원가로 인정으로 인해
양 승인은 원가로 봐 불리 원인·충당 평가가 있는
유사성이 인정된다.

3. 상품 유사 여부 (각각)

(1) 상품 유사 여부 판단방법 (4가지)

각 상품이 동일·유사한 상품이 사용된 경우 같은
상황에서 여러 제2·원래되는 상품으로 인식된 평가가
있을지에 따라 판단한다.

(2) 사실

·부러 개량상품인 '신발국산'과 종 2의 개량상품으로서
스타일디자인이 디자인하는 '바디리전'은 종원 업체가 생산
하는 기타상품이 인이, 동일·유사한 상품 사용 종원
업체 생산으로 의 가능한 유사성이 인정된다.

4. 상품의 배열

따라서 2 관련 상품은 甲 신발국산상품과 동일·유사
한 상품·상품으로서 종2, 3, 4는 1과 1에 해당하지만,
유사성이 인정된다.

2.2.

<아하여백>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